

# 서울대 급식노동자 1명이 133인분 준비... 총원계획도 없어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수 감축 노동자 80% 근골격계질환 시달려 짧은 식사시간 등 노동환경 열악

18일부터 대면 수업 확대를 시작하는 서울대학교에서 급식 노동자 1명이 학생이 먹을 급식을 무려 133인분을 마련해야 하는 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측이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급식노동자 수를 지난해 대비 27% 감축하면서다.

대학 측은 인력 총원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 ◆급식노동자 10명 중 8명 '업무상 질병' 시달려...식사는 10분 만에

17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수는 지난해 122명에서 올해 89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총장이 "급식 노동자 인력 감축은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것과 달리, 올해 무려 27% 감축이 이뤄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서울대 지부 등이 최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생협 단체급식 조리실 노동환경 및 건강영향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뉴스1

진 셈이다.

과중한 노동을 견뎌내며 급식노동자들은 '업무상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지난 10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10명 중 8명이 근골격계질환(NIOSH 기준)에 시달리고 있다고 답했다. 식사 시간은 84명 중 절반 이상인 45명이 15분 이내, 3명 중 1명은 10분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일 대면 수업으로 식당 이용

객이 증가하면, 생협 급식노동자가 1인당 준비해야 할 식수는 대면 강의 전 69그릇에서 대면 강의 후 133그릇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다. 특히 생협 내 동원관의 경우, 1인당 준비 식수가 36그릇에서 133그릇으로 최대 3.6배까지 치솟는다.

## ◆출·퇴근 일정 '하루 전' 통보...방역 업무까지 더해져 부담

급식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 또한 들쭉날쭉해 개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

대지부가 총 84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0대 여성이 다수인 생협 단체급식실 노동자들은 많은 경우 매주 다른 시간에 출·퇴근을 하지만 정작 하루 전이나 며칠 전에 출근 시간을 알게 되는 상황이다.

또한 91.5%의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내내 서 있다'고 응답했으며, 소음, 미끄러운 바닥, 불편한 자세 등의 유해환경 요소에 자주 노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사고로 병원 치료를 한 적 있다는 응답은 26.9%에 이르지만, 그중 75%의 참여자들은 본인이 치료 비용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이 사고나 질병을 경험하더라도 산업재해 신청조차 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이런 인력난은 생협 급식노동자의 계약직 만료 후 대학 측이 인력 총원을 하지 않으면서 비롯됐다.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는 셈이다.

문제는 서울대가 18일 대면 수업을 전환하면서도 인력 총원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송호현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지부장

은 "계약직 노동자들이 2년간 일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해 퇴사하게 되고, 신규 노동자도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충분히 업무 교육을 거쳐 적응하기 이전에 퇴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해진 시간 내에 주어진 업무를 해내야 하는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인간적인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인력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골격계 부담을 가져오는 중량물 무게를 줄이고 노후한 급식실 노동환경을 현대화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현장 목소리를 확인해보니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서 일이 줄었을 거라는 건 탁상공론이고 실제로는 방역 업무가 훨씬 늘었다"며 "급식 노동자들이 수백 명이 들어가는 식당 테이블에 놓인 투명 플라스틱 패널까지 다 닦아야 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힘들어졌다는 것이 공통적인 증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세정 총장은 "방역 관련 업무는 잘 생각을 못 했다"며 "점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대문·개포도서관 '우수도서관' 선정

2021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맞춤형 온·오프 서비스 혁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열린 '제58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서대문도서관(국무총리상)과 개포도서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2021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서대문도서관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16년 국무총리상에 이은 세 번째 수상으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중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온·오프라인 도서관 서비스 혁신을 이루며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개포도서관은 지난해 국무총리상에



개포도서관(스마트도서관) 모습. /서울시교육청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수상했다. 이용자 요구분석을 통한 체계화된 장서 관리와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지원 체계를 갖추는 등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모형을 개발한 공로로 우수도서관(문화체육관

광부장관상)에 선정됐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은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인정받아 ▲2019년 송파·강서도서관(국무총리상) ▲2019년 강동·어린이·중로도서관, 마포평생학습관(장관상) ▲2020년 개포도서관(국무총리상) 등 매년 수상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대국민 도서관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문화생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공공·학교·병영·교도소·전문도서관을 대상으로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를 실시해 우수 도서관을 선정해왔다. 2021년에는 공공도서관 부문에서 1134개관이 참여해 경쟁을 펼쳤다. /이현진 기자

# 한국어 형태소 분석·단어 임베딩 기술 개발

강승식 국민대 교수 연구팀

국민대학교는 강승식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연구팀이 딥러닝 언어처리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KLT2000)를 파이썬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임베딩 기술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KLT2000 형태소 분석기는 국내외 최고 수준의 언어처리 기술로써 강승식 교수 연구팀은 이를 기반으로 한국어 워드 임베딩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

은 딥러닝 언어처리 기술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데 활용되며 국내외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한국어 워드 임베딩 모델은 IT융합 시대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SW기반 원천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수행됐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세대정보컴퓨팅 사업(과제명: 한국어 정보처리 원천기술 연구개발)의 결과물로 구축된 국내 최대 규모의 한국어 원시말뭉치(7억3000만 어절, 49000만 문장)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이현진 기자



(왼쪽) 사회를 맡은 이광호 케이코딩 대표 컨설턴트의 특강 진행 장면과 (오른쪽) 박상규 중앙대 총장의 개회사 장면 /중앙대

# 세종대, 글로벌기업 동문 선배 특강 성황리

학생 참여율·만족도 높아 사전설문으로 궁금증 해결

세종대학교 대학일자리사업단은 글로벌 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 동문 선배 초청 특강'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세종대는 지난 8일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에 재직 중인 동문 선배를 초청해 기업소개, 입사전형 및 준비방법, 직무소개,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특히 기존 글로벌기업 현직자 특강이 타 대학 출신 강사가 진행했던 것과 달리 이번 특강은 세종대 졸업생을 강사

로 초빙해 학생들의 참여율 및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강은 코로나19 예방과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줌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궁금한 점을 사전설문지를 통해 미리 취합해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세종대 대학일자리사업단에서는 이외에도 11월에 영문 이력서 작성법 특강과 영어 면접 대비를 위한 특강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 삼육대 동문장학회 설립 발전기금 5760만원 쾌척

삼육대학교는 생활체육학과 동문들이 후배들을 위한 동문장학회를 발족하고, 발전기금 5760만원을 쾌척했다고 17일 밝혔다.

15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총장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생활체육학과 동문장학회 김영미 교수(99학번 동문)를 비롯한 16명의 동문이 참여했다. 이들은 장학회 발족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5760만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장학회는 앞으로 학과 발전과 재학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 중앙대, AI 전문가 초청 온라인 특강 성료

BK21사업 일환... 올해 3번째 특강

중앙대학교는 14일 원격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AI 교수진과 전문가를 초청해 '더 나은 삶을 위한 인공지능(AI)'을 주제로 AI 온라인 특강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AI 학습역량을 강화는 물론, AI 교육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BK21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열린 이날 특강에서 강연자로 ▲김형주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 교수 ▲김병필 카이스트(KAIST) 기술경

영학부 교수 ▲박선욱 Lunit AI연구팀 전문연구원 ▲이창희 중앙대 AI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강연자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인공지능의 역할, 인공지능을 통해 야기되는 사회적 이슈, 앞으로의 방향성 등에 대해 강의를 펼쳤다.

특히 이날 강연에서는 특강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 채팅창을 운영해 강연자가 수강자들의 문의사항에 대한 실시간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강연 내용을 공유하고 부연설명도 병행해 이뤄졌다. /이현진 기자